

2011 MAY·JUN Vol.87 05·06

인하대병원

사랑과 나눔을 통해 따뜻한 아웃사랑을
실천하는 당신은 자원봉사자입니다



JCI

World Best Safety, Global INHA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11. 05+06

CONTENTS

May.Jun Vol.87

04	개원기념사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자
06	행복을 전하는 글	내가 살아보니까
07	Well-being Report	환경을 보존하며, 자연과 함께 하는 신개념 레포츠
10	암: 함께 이겨내요	"암 정복을 위한 인하대병원의 약속"
12	의학정보 1	방사능 제대로 알아보기
14	의학정보 2	치주질환(잇몸 병)
16	의학정보 3	뇌성마비의 이해와 치료
18	운동처방사의 운동법	복부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운동요법
20	부서탐방	진로지원팀? 진료지원팀!
22	희망 나누기	인천 새마을금고와 함께 지역사회에 새 생명 희망의 날개 선물
24	희망천사 릴레이	떡볶이 아줌마 김희영의 눈물어린 기부이야기
26	글이 머무는 풍경	폭주족 이야기
28	병원 둘보기	특수간호팀 – 어버이날 행사를 마치며...
30	책향기	독서동아리 책향기 – 인하대병원 book-topia를 시작하며...
31	톡톡약물상담	최고조 두통 전 복용해야 효과적
32	협력병원탐방	예지향외과의원 / 호림자활의학과
33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피령새 소식
38	알립니다	언론보도 / 인사동정 / Global Inha /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발전기금 / 무료공개강좌 / 암 진료시간표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자



생명의 기운이 넘치고 산하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참 좋은 계절에 개원을 하여 개원기념식이 더욱 빛나는 듯합니다.

개원 15주년이라 하면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원초기부터 계셨던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무 것도 없던 허허벌판에 병원을 짓기 시작하여, 아무 것도 없는 데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나고 보니 주변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나아지고, 우리 병원도 임상의학연구소, 동물실험시설, 최근에는 국가지정 지역임상시험센터, 호미오세라피 성체줄기세포연구소, 작년에는 NCEED 등 많은 연구소가 들어섰고, 공항의료센터, 송도에 유타인하DDS 연구소도 세웠습니다. 최근에는 주차장도 세우고, 작년에 지하에 편의시설도 들어와 병원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중에 우리병원은 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5주년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지난 12월 이사회에서 우리병원이 600병상을 증축하는 안이 통과되어 금년에 추진본부와 추진단이 결성되어 증축을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5년 후 2016년 즈음이면 6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옆에 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장기근속상, 모범직원 특히 공로표창을 받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병원 발전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해주리라 믿습니다.

교직원 여러분

병원의료환경은 어려워집니다. 올해도 0.93% 진료수가 인상을 시작으로, 영상의료수가 CT 15%, PET 16%, MRI 15.3% 등 평균 15% 수기가 인하됩니다. 이로 인해 연간 23억원정도의 손실과 상급병원 약 가치등제도로 인한 손실이 5억원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잘 되어나가는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어려운 중에도 2010년에 6.7% 의료수익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중 경영순익은 아주 미미합니다만, 최근 4년간 감소추세였으나 작년 1.6%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고 의미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곡선을 되돌려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처음

15th Anniversary

시작하는 것보다 몇 배의 힘이 드는 일입니다. 다행히 교직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에 가져온 결과입니다. 더구나 작년에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 수익이 감소하였음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도 잘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을 금년의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고,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에 적극 협력하고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지난해 개원기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병원 개원 20주년 되는 2016년에는 600병상을 증축 개원하여 특성화 전문센터를 갖춘 15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으로 거듭나고, 진료와 연구가 균형을 이루는 연구중심의 병원운영체계를 구축하며, 선진진료시스템을 구축으로 국내 TOP 7 병원이 되는 것이 우리병원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추진한 핵심과제에 대한 성과와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과제인 600병상 규모 증축사업은 지난 12월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어 신관건립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 단계를 거쳐 내년 중에는 착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연구중심의 병원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년 5월에 서준규 교수 팀이 성의학 연구과제로 병원특성화연구센터 국책과제를 유치하여 5년간 50억 원의 연구비 수주로 연구인프라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송순욱 교수팀이 성체줄기를 이용한 연구과제로 최장 8년간 최대 200여 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예정되어 있는 연구중심병원 지원사업 국책과제만 수주하면 지역임상시험센터, 유효성평가서비스센터, 병원특성화연구센터가 연계되고, DDS연구센터, 성체줄기세포연구센터, 임상연구센터, GMP시설 등 임상연구 클러스터 구축으로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기본 인프리를 모두 갖추게 되며, 이는 소위 BIG5병원 임상연구 인프라와 같이하는 유일한 병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선진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관건립추진본부 기획단 중심으로 진료의 특성화, 질환중심의 전문센터화, 환자중심 one-stop total care 통합의료시스템 등 선진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가

치를 정립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체계화 하기 위해 VISION 2020+IUH Innovation plan을 수립하여 내년 개원기념식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이러한 가슴 벅찬 꿈과 소망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직과 일에 대한 본질과 초심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15년 전 개원을 준비할 때 그 마음, 우리병원에 첫 출근할 때 그 마음, 우리의 열정, 환자를 위한 봉사, 희생, 직원간의 협동, 사랑의 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스타벅스 창업자이자 CEO인 하워드 숄츠가 최근 출간한 '온워드'라는 책을 보면, 초심과 핵심가치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스타벅스는 블룸버그로부터 '몰락'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기업 핵심 가치와 초심을 잊고 샌드위치를 파는 등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했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인 2008년 2월 26일 오후 5시 30분. 미국 전역에서 7100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일제히 문을 닫습니다. 구원투수로 나선 하워드 숄츠가 첫 번째로 내린 극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8년 만에 최고경영자 자리에 복귀한 그는 자신이 창업할 때 나걸었던 초심을 사원들에게 다시 제시합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매개체였다"고, 그리고 커피 바리스타는 완벽한 맛과 향으로 완성된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고, 그 과정이야말로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정신' 이자 스타벅스가 40년 동안 지켜온 핵심가치였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개혁 2년 만에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우리도 잊어 버렸던 초심과 열정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2016년 Top7 목표를 위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나부터'라는 혁신적 마인드와 열정과 꿈이 있는 초심으로 돌아가 현재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것은 기본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인생에는 늘 걸림돌이 있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병원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열정과 지혜를 모아 함께 동행하며 협동할 때에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원기념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1. 5. 27

인하대학교 의료원 의료원장 박승림

내가 살아보니까

장영희 에세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밀지는 적이 없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 걸리고,
그리고 그와 사귀는 것은 한 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남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



환경을 보존하며, 자연과 함께 하는 신개념 레포츠 자연과 한바탕? 건강, 재미, 스릴까지

숲 속에서 가족이 함께 즐기면서 삼림욕 효과는 물론 운동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이색 레포츠가 있다. 바로 녹색 자연을 보전하며 자연과 함께 하는 신개념 친환경 레포츠인 짚라인과 에코 어드벤처가 그것이다. 자연에서의 다양한 활동들과 결합하여 그곳에서 한바탕 즐기는 이 레포츠는 신나는 어드벤처 프로그램으로 각광받으며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

Zipline

오감이 짜릿!!! 짚라인, 필요한 건 용기와 도전!!!

자연 속에서 모험, 체험을 즐기며 건강까지 생각하는 일석이조의 레포츠가 있다. 어린시절 밀림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타잔을 보면서 슬쩍 흥내를 내 보며 하늘을 날고 싶은 동경, 누구나 한번쯤 상상해 본 것이다.

짜릿하게 하늘을 가로지르며 오감이 짜릿해지는 그런 레포츠가 바로 짚라인이다.

짚라인은 양 편의 나무 또는 지주대 사이로 튼튼한 와이어를 설치하고 탑승자와 연결된 트롤리를 와이어에 걸어 줄을 타고 나무 사이를 비행하듯 이동하는 레포츠이다. 열대 우림 지역 원주민의 교통수단에



서 척안된 짚라인은 와이어를 타고 이동할 때 '지읃~~~'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짚라인이라 불린단다.

와이어를 이용하여 하늘을 비행하는 스릴감 넘치는 레포츠의 일종인 짚라인(Zipline), 나무와 나무 사이를 가르며 숲속에서 완전하게 즐기는 에코 웰빙 레포츠로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에게 딱 필요한 신개념의 어드벤처 프로그램이다. 나무 두 그루에 와이어를 연결하고, 나무 사이의 줄을 타며 이동할 때는 전신을 쭉 펴는 스트레칭이 되며, 대부분 휴양림이어서 신선한 자연의 공기를 맴껏 들이킬 수 있는 그야말로 웰빙 그 자체이다. 또 다음 코스로 이동할 때는 등산 효과도 특특히 본다.

따로 고가의 장비나 어려운 훈련은 필요치 않다. 필요한 건 용기와 도전 정신뿐이다. 10여분 정도의 탑승방법 안내만으로 손쉽게 타 잔이 되어 숲속을 나를 수 있다. 또 숙련된 ZG(Zipping Guide)의 도움을 받아 어린아이에서 어르신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짚라인은 가족과 연인, 또는 동료들과 함께 공기 맑은 숲 속에서 하늘을 나는 신비감과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적 레포츠이다.

짚라인 어디서 즐길 수 있나?

문경 불정자연휴양림 - 짚라인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문경 불정자연휴양림이다. 불정산은 해발 487m로 백두대간의 중심이자 동식물의 남, 북방 한계선이 지나는 중간지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동, 식물들이 서식하는 천연 보고이기도 한 이곳은 짚라인을 즐기며 자연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불정 자연휴양림에서 즐기는 9개의 다이내믹한 코스는 아찔한 능선과 계곡의 조화 속에서 짚라인 고유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 숲이 예쁘고 공기가 맑은 걸로도 유명한 이곳은 숲 해설가들과 함께 무료 숲 해설을 들으며 삼림욕을 할 수 있고 숲 속의 집이라는 통나무집에서 깨끗한 환경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휴양림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매력적이다.

불정자연휴양림은 푸른 자연과 함께 즐기는 최고의 익사이팅 레저 스포츠로 만족할 만한 감동을 안겨준다.

산천어 축제장인 화천군의 짚라인 - 화천군에서도 세계 각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짚라인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화천군은 '카트레일'과 함께 즐거움을 주는 관광 인프리를 구축한 셈이다. 화천군의 짚라인은 봅슬레이 타워에서 종합안내센터까지 전체 길이는 200m정도이다.

양양의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 최근 자연 속에서 모험, 체험을 즐기

려는 레포츠형 관광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양양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에도 신종 레포츠인 짚라인 설치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이곳은 양양송이가 생산되는 수십년 된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고 정상부에서는 탁 트인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이 뛰어난 곳으로 짚라인을 타고 내려가며 자연숲을 가르는 신비감과 스릴, 산과 바다를 동시에 느끼는 색다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coadventure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 업그레이드 - 에코 어드벤처

에코 어드벤처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와이어나 로프, 목재구조물을 이용해 옮겨가는 신개념 레포츠다. 역시 숲속이 자연 헬스장인 에코어드벤처는 적당한 운동을 통하여 삼림욕의 효과를 2배로 올려준다. 삼림욕이 주는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효과가 더욱 커진다. 이 또한 전신운동으로써 평소 사용하지 않던 내 몸의 착한(?) 근육을 깨어준다.



에코 어드벤처는 사뭇 군대 유격훈련과 닮았다. 땅에 발을 디디지 않고 그물을 타거나 줄에 매달리고 구름다리를 건너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하니 말이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과 담력은 기본이다. 코스마다 난이도가 다르지만 단순히 놀이라고 알잡아 보다가는 큰코 다치기 일쑤다.

그래서 또 남성들은 대체로 객기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 상급자 코스를 도전했다 탈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힘보다는 요령에 의존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잘 티는 경향이 있다고.....

에코 어드벤처 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린이 코스가 별도 준비되어 있고, 어린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오면 패밀리 코스를 즐길 수도 있어, 유아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셈이다.

코스를 타기 전 안전교육은 필수다. 공중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교육의 핵심은 안전장비 활용. 헬멧과 손 장갑, 허리 안전장비인 보드리예를 착용한다. 특히 무스끄뚱(안전고리)과 블리(도르래)가 장착돼 있는 보드리에는 가장 중요한 장비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건널 때마다 무스끄뚱을 빨간색 표시가 있는 로프에 반드시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생명줄'인 것이다.

에코 어드벤처, 어디서 즐길 수 있나?

대구 허브힐즈 - 국내 최초로 에코 어드벤처를 개장한 곳이다. 허브힐즈 내의 에코 테마파크에서 친환경공법으로 만들어진 에코 어드벤처를 향기롭게 즐길 수 있다.

난이도에 따라 총 6가지 코스가 있는데 처음 티는 사람이라면 고릴라 코스를 추천한다. 어느 정도 체력과 담력에 자신 있다면 킹콩 코스도 해볼 만하다. 최상의 난코스인 타잔 코스는 킹콩 코스에 익숙하거나 체력이 충분히 받쳐주는 사람이 아니면 도전하기가 버겁다. 시작부터가 10m 높이의 인공암벽 등반이니 예비역이라도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니다.

서울랜드(스카이 어드벤처) - 서울에서는 나무 사이를 다니는 딤섬처럼, 하늘을 위를 나는 새처럼, 끈 하나에 매달려 떨어지는 스릴을 서울랜드에서 이용할 수 있다.

비기너 코스 8,000원(키125cm이상), 챌린저코스 12,000원(키145cm이상) 자녀와 함께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 비기너 코스 4,000원, 챌린저코스 6,000원이다.

완주 고산휴양림 - 자치단체로서는 완주군이 처음으로 고산휴양림 일대에 자연 지형지물과 와이어, 로프 등을 활용해 공중에서 자연 속을 안전하게 이동함으로써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친환경 레포츠

시설인 에코 어드벤처시설을 설치하였다.

허브힐즈의 에코 어드벤처는 손오공 코스(어린이코스), 저팔계 코스(가족코스), 슈퍼보드 코스(구름다리+띠롤리엔 코스)로 총 3개 코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고산 자연휴양림 일대는 전국 최초의 무궁화 테마식물원과 오토캠핑장 등과 함께 밀리터리 테마파크도 이용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며 그야말로 '푹 쉴만한 곳' 이 그리울 때가 있다. 쫓기 듯 지내왔던 일상을 잠시 덜고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곳이 '자연휴양림' 이다. 이 대자연 속에서 우리는 느림의 미학으로 가끔은 원시적 방법으로 위안을 받아도 좋을 듯싶다.

따가운 햇살~ 찌는 듯한 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녹음이 더욱 짙어가는 계절에 진한 녹색으로 빽빽이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정글 속을 누비는 타잔이 된 듯한 짜릿한 느낌을 맛보자.

| 문의 : 짚라인코리아(www.zipline.co.kr 1588-5219)

에코어드벤처(www.ecoadventure.co.kr 053-767-6300)

* 사진/자료제공 : 짚라인코리아, 에코어드벤처

글 · 이정희 | 자유기고가

미리 알아두면 요긴한 주의사항과 용어들을 정리해 보자.

| 복장수칙

몸무게 제한 - 체중이 30kg 이하나 130kg 이상은 곤란하다. 와이어가 지탱하는 무게의 한계 때문이란다.

복장 제한 -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야 한다. 풀어헤치거나 반 묶음 머리도 안 됨. 운동화나 굽이 없는 신발 신어야 해요. 굽이 높은 신발은 절대 안 된다.

| 외워두어야 할 용어 -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용어들

장비들이 모두 프랑스 제품이라 프랑스 용어로 되어 있어 익숙하지 않다. 꼭 알아두어야 한다니, 잘 기억해 두자.

보드리예 - 허리와 양 다리를 지지하는 안전벨트, 안전교육부터 체험을 마칠 때까지 필수착용

무스끄뚱 - 안전고리이자 이동용 게임장구, 체험코스에 진입 후 항상 게임시설에 연결

블리 - 띠롤리엔 팁승용 게임 장구, 띠롤리엔 체험시 사용하는 슬라이딩 게임 장구

띠롤리엔 - 짚슬라이드 게임, 에코 어드벤처의 대표적인 게임시설

플랫폼 - 정거장, 다음 게임으로 이동하기 위한 정거장이자 휴게 공간



‘암 정복을 위한 인하대병원의 약속’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질환이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각종 암은 고령층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그 발생이 점차 늘고 있으며 상당히 진행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암의 조기발견과 진단, 치료 더 나아가 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암에 대한 인식 향상과 암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인하대병원이 2011년도에 애심 차게 “통합 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하대병원은 통합 암 진료 시스템 구축, 환자 중심의 전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원스톱 서비스로 환자, 보호자에게 한 차원 높은 암 진료 만족도 증가를 목표로 암 진료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암 종별 진료시간표 설치를 통해 암 종별 진료과 및 교수진, 진료 요일 안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하대병원 암 센터는 종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 교육 및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치료를 위해 교수, 종양 전담 간호사, 이식 코디네이터, 연구 간호사, 사회 사업가,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원 병동에는 종양 전담 간호사가 있어 높은 수준의 암 관련 지식과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요구를 정확히 사정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간호와 교육 및 개별상담을 통해 환



| 2011 암슬로건 공모 당선작

♣ 조성빈 | 원외

암 완치, 꿈이 아닌 약속, 인하대병원

♣ CCU | 심혈관집중치료실

암 치료의 새로운 미래! 인하대병원이 열어갑니다.

♣ 신서연 | 교육수련부

암 걱정 없는 행복한 삶, 인하대병원이 앞장서겠습니다.

♣ 최화숙 | 특수간호팀

암 치료로 희망을! 암 예방으로 건강을!



자와 가족들의 치료 효과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암 관련 센터(여성암센터, 폐암센터, 임상연구센터 등)와 최신 첨단 장비(래피드 아크, 4차원 사이버나이프 등)를 이용한 세계적 수준의 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인하대병원에 등록된 암 질환 중 위, 폐, 유방, 간, 대장, 췌장, 혈액계, 자궁 및 난소 등 호발 부위 암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암 종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하대병원 암 전문의로 구성된 TFT를 구성하고,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암 환자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암 전문 병원 이미지 구축이 목표입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주민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암슬로건 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자발적인 홍보 이벤트를 통한 암 사업의 중요성을 고취시켜 인하대 병원이 암 예방, 치료, 연구 분야의 리더이며 활발한 암 치료 활동을 담은 내용으로 총 400여건의 슬로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통합 암 사업 목표인 암 환자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첫째, 암 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 내외 공개강좌를 통해 암 예방 생활 수칙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 등을 알릴 예정입니다.

둘째, 최신의 암 교육자료를 체계적으로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암 종별 리플렛(총14종)을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암 전문 병원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활동으로

첫째, 원외 강좌(사업장, 학교, 보건소등),

둘째, 무료검진(암표지자 검사, 객담검사, PAP Smear 등) 및 개별 상담을 시행 할 예정이며

셋째, 공익 광고 활동으로 암 종별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넷째, 적극적인 환우회 지원을 통해 환우들에게 투병의지를 심어주고 효과적인 정보제공과 정서적인 교류를 통한 암 극복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소아암 환우회 '831호 친사들', 유방암 환우회 '파랑새' 각종 모임 및 행사 지원.

다섯째, 커뮤니티 운영 지원을 위해 병원 홈페이지 내 암환자 전용 사이트 운영과 포털 사이트 내 환우회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장기 생존자 초청행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장기 생존자 중 암 종별 홍보대사를 지정하여 투병 중인 환우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는 등의 봉사 활동 및 인하대병원을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입니다.

인하대병원은 21세기 암 정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진행될 암 사업들을 통해 지역사회의 암에 대한 인식 향상과 암의 예방, 치료 및 관리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 | 암(질환)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이벤트 확대사업 TFT



방사능물질은 자연적으로 혹은 인공적으로 붕괴되면서, 알파입자, 베타입자, 중성자와 같은 입자, 전자파(X-선,감마선)을 방출하는데, 이때 다양한 에너지가 배출된다.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까닭에, 방사성 물질은 세포에 손상을 주게 되며, 노출량이 많으면 세포를 죽이고, 암·노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활성(유해)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내, 세포의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시민들은 이미 소량의 자연방사능에 노출되어 있지만, X선과 CT 등 의료기기 등을 통한 노출 등을 포함하여 일반 시민들은 연간 1mSv(밀리시버트) 내로 그 노출 한계가 정해져 있다. 시버트는 생물학적 영향을 고려한 방사선의 조사단위인데, 밀리시버트는 시버트의 1/1000에 해당한다. 채르노빌 사고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사결과 1mSv 노출에 따라 10만 명당 38명의 갑상선암, 10만 명당 54명의 심혈관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추가노출이 0.1mSv이하일 것으로 추정되고, 아직 국내 시민들에 미치는 건강영향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주 미미한 량의 방사선 노출로 인해, 하루 이를 비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시민들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의 원전사고가 어떻게 발전될지 아직은 불확실한 것이 더 많다. 만약 우리 국민 5000만 명이 모두 방사선에 1mSv에 추가적으로 더 노출된다면, 갑상선암은 19,000명, 심혈관질환은 27,000명으로 발생 수가 늘 수 있어 그 피해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 원전사고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방사선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임종한 교수 | 산업의학과

• 전문분야 : 환경성질환, 화학물질관리, 직업성호흡기질환, 고염제
• 진료시간 : 화(오후), 목(오후)
• 문의 : 산업의학과 ☎ 032-890-2861



Q & A

Q: 일본에서 수입한 농·수·축·임산물이나 식품은 안전한가?

A: 거리나 풍향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식품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식품을 통한 방사선에 노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본산 식품은 통관 단계에서 잘 걸러 내야하고, 시민들도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축산물 등을 특별히 구입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한다.

Q: 방사능 피하기 위해 약을 복용해야 하나?

A: 방사선에 직업적 노출의 2배 이상 노출된 사람의 경우, 노출 직전과 직후에 요오드를 복용하면, 방사선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갑상선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요오드 보충제를 먹어야 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오심, 구토, 위장장애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 없이 요오드를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된다.

Q: 방사능 오염을 막기 위한 식품이 있나?

A: 평상시에 요오드 섭취가 권장치에 못 미치는 경우, 인체가 방사선에 의한 손상을 받았을 때 그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요오드 섭취가 평소에도 권장치를 상회하기에 방사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터 해조류 등을 섭취할 필요는 없다. 방사성 요오드에 대비해 약(요오드화 칼륨)으로 복용하는 요오드의 양(130mg)은 성인의 하루 요오드 섭취 기준의 몇 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조류를 섭취하는 것만으로 방사성 요오드에 대처할 수 없다.”

Q: 임신부들은 특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A: 임신부가 방사선에 노출되면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 임신부는 특히 요오드 성분 약을 복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요오드가 태반을 통과하고 수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될 수 있어서다. 태아나 모유를 먹는 아기의 경우 요오드를 과다 복용하면 자칫 갑상선기능저하증에 걸릴 수 있다.

Q: 중국에서 소금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소금이 도움이 되나?

A: 요오드화 칼륨은 다량의 방사선 노출을 입은 사람들에게 방사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요오드가 미리 갑상선을 보호해 방사성 요오드로부터 갑상선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 요오드화 칼륨이 식염 성분 중에도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소금을 먹어 방사능을 예방하려면 매일 3kg(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은 하루 5g)의 소금을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효과보다는 심장병과 고혈압 위험만 키울 수 있다.



치주질환(잇몸 병)

치주염 치료의 기본은 칫솔질!

30~40대 나이가 넘어서면,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며 시린 증상이 심해지는 경험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벼운 잇몸 출혈이나 시린 증상은 칫솔질을 잘하면서 구강관리에 신경 쓰면 별다른 문제없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나, 잇몸이 지속적으로 붓고 피가 나며 입냄새가 심하거나 간혹 농(고름)이 치아 근처 잇몸에서 흘러나오고 통증이 있으면 치주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치주염은 한국 중년의 상당수가 지니고 있는 잇몸 병으로, 충치와 더불어 현재 한국인 10대 만성질환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치주염이란?

일반적으로 치주염은 치태(플라그:plaque) 및 치석 등으로 인해 잇몸에 생긴 염증이 치아를 지탱하는 뼈, 즉 치조골(잇몸 뼈)를 녹게 만드는 만성 염증성 질환을 말합니다.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치주조직(잇몸 및 잇몸 뼈)이 서서히 파괴되어서 이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치아가 빠져 버리는 병입니다. 만성 질환이어서 증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좀처럼 통증을 느낄 수 없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치주염은 학술용어이며, 흔히 풍치라고 하는데 치주질환, 잇몸 병 등으로 일반적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만성 치주염은 세균감염에 의한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주원인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을 함유

한 치태와 치석입니다. 대개 음식을 먹고 3분 정도가 지나면 치태가 생기는데 양치질을 하면 제거되지만 제때 제거하지 않은 치태는 점차 누적되어 단단한 치석이 형성되고, 이러한 치태와 치석이 염증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치주낭을 형성하여 그 염증이 치조골까지 침투해 치주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잇몸질환이 더 심각한 이유는 잇몸이 아픈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잇몸질환 때문에 심장병, 심장마비, 뇌졸중, 조산까지도 발병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이유는 잇몸질환 세균과 염증 물질이 혈류를 타고 혈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혈당치를 내리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널리 시행되고 있는 치과 임플란트도 잇몸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치주염과 유사한 임플란트주위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로는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치태의 침착으로 인한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염증이 진행되면 자연치아에서 잇몸 뼈를 녹게 만드는 치주염이 생기듯, 임플란트에서는 임플란트주위염이 생겨 임플란트를 지지하고 있는 잇몸과 잇몸 뼈가 서서히 파괴되어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 잇몸 뼈 속에 삽입되어 진 임플란트 뿐만 부분을 제거해야 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주위염(잇몸이 붓고 출혈)



윤정호 교수 | 치과

• 전문분야 : 치주과, 치조골재생, 임플란트 수술
• 진료시간 : 월(종일), 화(오후), 목(종일), 금(오전)
• 문의 : 치과 ☎ 032-890-2470

치주염의 증상은?

치주염 초기에는 대부분 자각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중기나 말기에 여러 가지 치주염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주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부은 느낌이 나고 건드리면 아픈 증상이 있거나, 차갑거나 신음식 및 자극에 치아가 시리거나, 치아가 흔들리거나, 씹을 때 치아에 불쾌감이 있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치아와 잇몸 사이에서 고름이 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치주염의 치료방법은?

치태 · 치석 제거를 통한 예방과 조기치료가 최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잇몸 질환과 잇몸 염증의 원인인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고 잇몸 염증에 의해서 파괴된 치주조직(잇몸 및 잇몸 뼈)의 형태를 회복시키고 건강한 구강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임플란트도 잇몸과 잇몸 뼈 속으로 삽입되어진 부위의 주변에 불결함이나 염증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필요시 자연 치아에서와 유사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선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치태 및 치석 등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을 시행합니다. 이후에는 치주염의 진행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하게 되는데, 초기 치주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잇몸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잇몸 통증 등을 방지하여 치주염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치료의 자체도 어렵지만, 기간도 길어지고 결과도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잇몸 뼈 파괴가 심하게 되면 잇몸 치료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어 치아를 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치주염이 진행되어 잇몸 뼈의 파괴가 심하여 치아를 뽑게 되면, 최근 치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 또한 더욱 어렵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잇몸 뼈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부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번 없어진 잇몸 뼈는 만들어 내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잇몸질환을 관리하고 치주염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치주염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결과는 보다 좋습니다.

치주염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비 외과적 방법(구강위생관리, 치태 관리, 스케일링, 치면 활택술 등)과 외과적 방법(치은 소파술, 치주 판막 수술 등)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환자에 대한 치주 검사를 시행해서 정확한 진단 후 질환의 진행정도에 맞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 치주 질환으로 인해 치주 조직이 심하게 파괴된 경우, 치주 조직에 존재하는 염증성 육아조직, 치석 등을 제거한 후, 치주 조직 재생술을 시행 합니다.

또한, 치주염으로 인해 치아를 발치하게 된 경우에는 이후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도 있습니다.

치주염에 대한 다양한 치료 후에는 3~4개월마다의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여 치아관리를 받아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번 치주염에 걸렸던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전문적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플란트에서도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적합한 유지관리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초기에 처치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임플란트가 장기 방치될수록 주변 잇몸 뼈의 계속적인 파괴로 인해 더욱 어렵고 복잡한 시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한 습관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치주염이 발생된 후 치료하는 것보다는 미리 치주염을 예방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며 보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칫솔질을 통해 치주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주염 치료의 기본은 환자 자신의 칫솔질이며, 매일 식후 꼼꼼히 정성들여 칫솔질을 함으로써, 잇몸의 상피를 강화시키고 세균 등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치주염의 진행도 멎게 되어 초기일 경우 쉽게 치주염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치주염과 잇몸 질환이 있거나, 치료가 끝난 경우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 다른 보조기구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가적인 구강위생기구는 칫솔이 닿기 어려운 부위의 치태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어서 치주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뇌성마비의 이해와 치료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발달이 늦은 것 같아요

유아기에는 뇌성마비의 진단이 어렵습니다. 뇌성마비 아이의 경우 조산, 출산 후 무산소증, 난산, 혼탕 등으로 비정상적인 출산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발달 과정의 지연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달 과정으로 머리카누기(3개월), 혼자 앉기(6개월), 기기(8개월), 잡고서기(8개월에서 12개월), 혼자 걷기(12개월에서 17개월 사이) 등이 늦어지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아이가 혼자 걷기 시작하면서 뻔뻔하게(경직성) 걸을 수 있는 데 까치발로 걸거나, 가위모양으로 걸거나 안짱걸음 등의 이상한 보행을 하면 소아정형외과 의사의 진찰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뇌성마비란 무엇인가요?

뇌성마비란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날 때 또는 태어난 후에 아직 발육이 덜 된 뇌에 손상을 입음으로써 생기는 질환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뇌가 손상될 수 있으며 이때 손상된 뇌는 흉터를 남기고 낫게 되는데 이런 흉터로 인하여 증상이 나타납니다.

뇌성마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뇌성마비의 원인은, 출산 전(30-50%), 출산 시(33-60%), 출산 후(10%)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출산 전 및 출산 시의 요인이 늘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산 전의 요인들로는 유전적 소인, 선천성 기형, 산모의 감염(특히 임신 초 3개월간에 있어서의 풍진, 매독, 기타의 바이러스 감염 등), 대사성 질환, 방사선 노출, 약물, 알코올 중독 그리고 탯줄이나 태반의 이상, 모체의 산소 결핍 상태 등에 기인한 임신 중의 무산소증, 모체와 태아의 혈액형의 부적합으로 인한 혼탕 등이 있습니다.

출산기의 원인으로는 태아의 미성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비정상 분만, 특히 난산 등의 기계적 요인과, 기도 폐색, 호흡 마비, 양수 흡인 등에 기인한 신생아 질식 상태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권대규 교수 | 정형외과

- 전문분야 : 소아정형, 뇌성마비, 종양, 외상
- 진료시간 : 월(오후), 목(종일)
- 문의 : 정형외과 ☎ 032-890-2380

출산 후 뇌가 성숙되는 2.5~3세까지의 원인으로는 머리 부위의 외상, 감염(뇌염, 뇌막염), 뇌 종양, 무산소증, 중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우선 성장 발육이 지연되며 보행 및 운동기능이 약해지며 우리 몸이 일상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조화로운 운동이 힘들게 됩니다. 근육의 경직성이 증가하여 뻣뻣한 느낌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굽어져 결국 관절의 변형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감각 기능, 자동 및 정서 등 여러 가지 중추 신경 기능의 이상이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정신 박약, 언어 장애, 간질, 시각 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뇌성마비 환자는 이미 뇌에는 활동적인 병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뇌를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성마비는 여러분야의 병행 치료를 요하는 질환입니다.

경직성, 근육의 부조화, 근육의 단축, 뼈의 변형 등 치료 가능한 것을 치료하고 자율적 근 조절 능력의 결여, 원초적 반사 등 치료 불가능한 것은 관찰합니다. 이 병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치료하여 오히려 장애를 증가시키지 말아야 하며, 각각의 치료에 대한 확실한 목적을 세운 후, 그 목적의 달성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치료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가능한 한 사용 가능한 근육의 힘을 충분히 사용하게 하며, 관절이 뻣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보조기를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하게 함은 물론, 외모상 보기 좋게 만들어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각 연령에 따라 중점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출생 후 4세까지는 주로 물리 치료 등의 조기 치료를 하며, 4세에서 6세 사이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고, 7세에서 18세 사이는 학교 생활과 정신적 및 사회 활동의 발달에 주력하고, 18세 이후에는 직장 생활, 결혼 생활 등이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크게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첫째로 물리 치료나 근육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물 복용 및 주사요법 등이 이용됩니다. 둘째로 근육의 단축이나 관절과 골에 발생되는 변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조기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술적 방법은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여 수술적 방법으로 정형외과적인 수술과 신경외과적인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정형외과에서는 경직형 뇌성마비인 경우에 주로 수술이 적용되며 불수의 운동형이나 운동실조형에서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수술은 보행이 성숙되는 시기인 5세경 이후에 주로 실시하며, 한 번에 모든 변형에 대하여 동시에 수술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일단계 수술의 장점은 수술 후 새로운 변형의 발생이나 변형의 재발 혹은 과정 등의 발생 빈도가 드물며 한 번의 입원으로 치료하며 물리 치료가 용이하고 변형을 한 가지씩 치료할 경우 자세의 이상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입니다.

수술 후에는 관절 강직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물리 치료를 하여야 하며 보조기의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뱃살 즉 복부지방을 제거하는 목적은 외모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복부 비만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함이다. 복부 비만을 진단하는 기준으로는 허리둘레로 남성 90cm(35인치), 여성 85cm(33인치) 이상이며 줄자를 이용해서 손쉽게 쟤 수 있다. 측정은 허리에서 가장 들어간 부분을 재면 된다. 배가 너무 나오신 분들은 측정하기 어려움이 있는 단점도 있다.

또한 배를 둘러싸고 있는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배를 꼬집어 만져지는 게 피하지방이며 여성에게서 많이 분포하며 피하 안쪽 우리 몸의 내장주변에 끼어 있는 지방을 내장지방이라 하며 남성에게서 많이 분포한다. 특히 후자인 내장 지방은 대사성 질환 및 사망률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내장 지방을 빼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임에 틀림없다. 과연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복부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운동요법

뱃살을 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뱃살 빼는 운동이 뭐예요? 홀라후프, 윗몸일으키기 및 진동운동기(일명 덜덜이)를 하는데 잘 빠지나요? 걷기나 자전거를 하면 뱃살이 빠지긴 하나요? 이는 운동처방사로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나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다. 특히나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서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어야 하는 이 시기에 이런 질문은 더욱 잦다. '과식, 야식 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원가 기적적이고 한 방에 빨 수 있는 해답을 바라는 눈치지만 아쉽게도 답은 항상 똑같다.

글 · 김치중 운동처방사 | 비만센터

복부주변 운동(윗몸일으키기, 훌라후프)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불행하게도 ‘아니다.’ 이다. 많은 사람들이 윗몸일으키기, 훌라후프 및 진동운동기를 하면 복부의 지방만이 제거 될 것이라 생각하여 실제로 이러한 운동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복부 주변(특정 부위)의 근육을 자극시키면 복부 지방조직이 활성화되어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의 지방보다 지방을 더 집중적으로 쓰게 될 거라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을 있다고 해서 복부비만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복부 주위를 강화하는 운동을 6주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복부의 지방은 단지 1mm정도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

왜 윗몸일으키기와 같은 국소 운동이 복부지방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할까? 근육은 운동하는 국소 부위를 자극하면 수축을 통해 국소 근육이 강화된다. 하지만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은 다르고 복잡하다.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 이용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이러한 호르몬들이 혈액을 타고 체내에 지방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여러 군데에 지방산 이용을 자극한다. 그렇게 되면 체내 지방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위나 지방 이용을 촉진하는 효소(리파제)가 활발한 부위에서 에너지를 많이 동원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특정 부위의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부위의 지방만이 선택적으로 제거되지는 않고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군데의 지방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부지방만을 선택적으로 줄여준다는 현란한 문구와 광고에 절대로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복부지방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답은 전신을 이용한 유산소 운동(속보, 조깅, 자전거, 수영 등)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실시하는 것이며 앞서 언급했듯이 이를 통해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운동 요법은 무엇인가?

운동 강도 복부비만자의 경우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가벼운 운동이라도 오래 그리고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보행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내장 지방량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고강도 운동이 낮은 강도보다 신체 구성의 개선, 혈당 및 관상동맥위험인자의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내장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운동 강도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소비했는지의 총 절대량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절대량은 운동 강도와 운동 시간을 곱하는 값이다. 즉 저강도 운동이라도 중, 고강도 운동 시보다 운동 시간을 길게 한다면 절대량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간 및 빈도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 빈도보다는 무엇보다 주당 총 운동 시간이 중요하다. 복부비만 예방을 목적이라면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거의 매일 30분 이상(주당 150분 이상)하면 내장지방의 증가 및 대사증후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복부비만자는 체중 또는 내장지방량을 줄이거나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보와 같은 중강도 유산소성 운동을 거의 매일 60분 이상(주당 300분 이상) 해야 한다. 또한 운동을 1회에 60분 동안 실시한 것과 20분씩 3회로 나누어 한 것을 비교했을 때 체지방 감량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시간이 없거나 체력수준이 낮고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기는 경우에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동 형태 앞서 언급했듯이 전신을 이용한 유산소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러한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수영, 등산, 배드민턴 등이다. 그리고 가벼운 산책, 계단이용하기, 만보 걷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늘리는 방법을 병행하면 더욱 더 효과적이다. 또한 근육량을 증가시켜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게 되며 신체활동 중 소비 에너지양이 많아 살찌기 어려운 체질이 된다. 유산소운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근육량이 필요한 사람, 관절염 및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 거동이 불편한 노인비만자의 경우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문의 : 비만센터 | 032-890-3360

진료를 지원하는
진로지원팀? 진료지원팀!

아시는 분 : 저... 어디 다니세요?
진료지원팀 직원 : 아, 네 병원이요.
아시는 분 : 어머! 그럼 간호사세요?
진료지원팀 직원 : 아뇨.
아시는 분 : 그럼 원무과에 계신가보다?
진료지원팀 직원 : (흐...) 아니요.
아시는 분 : 그럼....???(의사는 아니 것 같은데...)
진료지원팀 직원 : 진료지원팀이라는 부서예요.
아시는 분 : 네? 진로...진로지원이요???
사회활동하면서 저를 소개 할 때 겪는 일입니다.
그럼 제대로 한번 소개드려볼까요?

글 · 신소영 과장 | 진료지원팀



진료지원팀은 일단, 말 그대로 진료를 지원하는 팀으로 크게 진료행정,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부문과 해당 임상과 내에서 각종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사 부문이 있습니다. 소속 인원은 직원이 50명이고 자원봉사자를 포함하면 약 300명입니다.

Medical administration

진료행정

진료와 관련된 의료기획과 의료진 행정지원, 의료진과 행정부서와의 코디네이션, 진료부 관련 예산집행을 담당합니다. 의료진 행정지원업무는 학교의 행정실과 기능이 유사한데요, 전문의의 전반적인 진료스케줄을 관리합니다. 진료시간표 및 전문의 휴가, 학회, 공기에 따른 진료일정변경과 대진의 공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임상과와 관련된 대외기관 위탁사업 수행도 포함되는데 응급의료지원불전프로그램, 중증외상센터, 중구정신보건센터,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생물테라 이중감시체계 지정 의료기관 운영, 민간공공협력사업인 결핵상담관리사업 등입니다. 또한 본원 임상과 주최 학술대회 진행 및 학술연구비지원, 의사 회원 신고 및 회원자격유지관리 업무도 진료지원팀의 중요업무이지요.



Social worker

사회복지

우리병원의 사회복지업무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외부후원기관의 의료비 지원과 무연고자 무료간병 및 위생소모품도 지원합니다.
특히 자랑할 만한 것은 본원 직원들의 급여공제와 자투리금액 기부를 통해 조성된 사회복지기금 '나눔지기'입니다. 이 기금에 병원도 매칭펀드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나누고 건강과 행복은 지켜준다는 의미인 나눔지기 기금은 의료사회복지사의 추천과 사회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료비 마련이 어려운 분들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본원 직원 뿐 아니라 외부 후원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Volunteers

자원봉사

자원봉사부문은 약 250명의 자원봉사자님들이 이 2개 분야, 15개 부서에서 활동하시며 지역 내에서 지원한 봉사자분들이 본원의 환자나 보호자를 돋기 위해 늘 상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야 말로 직원보다 더 인하대병원과 환자분들을 사랑하는 분들이시죠.
대가 없이 나보다 어려운 다른 사람을 돋는다는 것이 말이 쉽지 결코, 절대, 진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런 숭고한 분들과 함께 하실 분, 몰라서 봉사 못하셨던 분들 인하대병원 진료지원팀으로 연락하세요.
꽃보다 아름다운 자원봉사자!!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Medical technician

의료기사

의료기사 부문에는 10개 임상과에서 각종 검사를 담당하시는 임상병리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청능사, 언어치료사, 방사선사 등 약 45명의 선생님들이 드나지는 않지만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알고 보니 우리 진료지원팀.

참 '완소' (완전 소중한) 부서죠?



2011년도 자원봉사자 아유회

Treatment support...Treatment support...Treatment support...Treatment support...Treatment support...Treatment support...Treatment support...Treatment support...



인하대병원, 인천 새마을금고와 함께
지역사회에 새 생명 희망의 날개 선물

의료사각지대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 주는 사업 전개 _
인하대병원과 인천시 새마을금고 새 생명돕기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회소외계층대상 의료비
지원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여자 어린이와 꿈 많은 사회 초년생에게
수술을 통해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수 있었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 있던 중년
여성은 삶의 희망을 선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중순부터 시작 된 본 사업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의료비를 새마을금고
에서 지원하고, 인하대병원은 첨단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례자의 건강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은 1회성 이벤트에 머무는 무료수술사업과는 달리 경인방송, 인천 새마을금
고, (사)희망배달본부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의료소외계층에 꼭 필요한 혜택을 꾸준
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자

권혜0 양(여/5)

“친구들과 뛰어노는 딸아이를 보니 마음이 뭉클합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밝게 웃는 권혜0양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심장병(심실증격결손증)에 걸린 딸을 위해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그저 하늘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진료비는 엄두도 내지 못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하대병원과 새마을금고가 함께 진행하는 무술사업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하대병원과 새마을금고가 함께 진행하는 무술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인하대병원 심장내과 백완기 교수의 집도하에 지난 11월 5일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권혜0 양은 “이제 친구들과 함께 힘껏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아요.”라며 활짝 웃었고 아버지인 권영씨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인하대병원과 인천시 새마을금고가 도와주어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언제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경0 님(여/57)

두 번째 사례자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 세상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2000년 이혼 후, 술에 하나 있던 딸마저 집을 나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한 달 3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고, 같이 사는 언니조차 일자리가 불안정해 지속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름도 생소한 미민성 대B세포 림프종 진단 받았으며,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으로 가족이 없고 기초생활 수급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이식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본 사업을 통해 진료비 걱정 없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노경0 님은 “저에게 이렇게 큰 행운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라며 “절망 속에서 찾아온 희망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세상에 보답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완기 교수와 첫 사례자 가족 및 새마을금고 관계자

세 번째 사례자

송여0 님(여/31)

“힘차게 뛰는 심장과 젊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송여0님은 어려운 가정환경과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인천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하려고 어린이집 취업을 위한 채용검진 중 청찬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심장병이 발견된 것입니다. 모르고 지나갔다면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당장 수술비 마련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송여0 님은 “이혼한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해드리려고 친구 집에서 살면서 돈을 벌고자 했지만, 건강문제로 인해 취업도 힘든 상태였습니다.”라며 “무사히 수술을 마쳐 건강도 되찾고, 노력해서 직장을 마련해 당당히 사회초년생으로서 집안의 행복을 되찾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사업 지원대상은 심장병환자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공제보상 규정에서 정한 난치병(희귀병)환자와 15세 미만의 소이암 환자,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인하대병원 진료지원팀 원공주 사회복지사 032-890-2870



떡볶이 아줌마 김희영의 눈물어린 기부이야기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겨웠어요. 그런데 나 같은 처지의 사람도 더 어려운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별것 아닌 일을 이렇게 격려까지 해주시니 그래도 살아볼만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구 용현3동에서 떡볶이 집을 하고 있는 김희영 씨. 월수입 7~80만 원 남짓의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가, 2004년부터 아프리카의 깊주리는 이동들을 돋는 ‘월드비전’에 매월 1만원씩 꾸준히 기부를 해오고 있다. 햇수로 8년째다. 빚에 시달리고 생활이 어려운 처지에서 ‘1만원의 행복’ 한 기부를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김희영 씨의 나눔 이야기는 그리 평범하지 않다.

찾아간 떡볶이 가게는 탁자 둘 량 2개뿐인 작은 가게였다. 그곳에서 환하게 웃음 짓는 김희영 씨를 만났다. 요즘 들어 매출이 눈에 띠게 줄어 시름이 많다고 했다. 2010년 12월 24일 전국의 기부천사 150명의 일원으로 청와대의 초청을 받은 김희영 씨가 기부천사가 되기까지의 사연은 정말 기구하다.

세 살 때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육남매를 다 돌볼 수 없던 아버지가 일곱 살의 김희영 씨를 강원도 원주의 남의집 수양딸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온갖 잡일에 매까지 맞으며 학대를 당했다. 그 시절의 상처가 지금도 머리와 손 곳곳에 흉터로 남아 있다. 12세 때 양엄마집을 나온 뒤로 친정식구들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또래 소녀들이 학교 다니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다는 김희영 씨는 그때까지도 호적이 없는 상태였다. 양엄마의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당시, 자기 성이 ‘김’ 가란 것도, 생일도 기억하지 못했다. 25세 때 지인의 도움으로 어린이날인 5월 5일을 생일로 해서 호적을 만들었다. 36세에 중매로 버스운전기사를 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상처한 흠이비로 노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결혼한지 1년 만에 중풍에 걸린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날만큼 유별난 성정의 소유자인데다, 당시 만삭의 몸이었기에 1년의 간병기간이, 십 수년의 세월처럼 느껴질 정도로 모질고 힘든 시간이었다. 그런데다, 어린 아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의 머리 통증이 심해져서 MRI검사를 받은 결과, 지주막낭종이라는 희귀질환 판정을 받았다. 4센티미터 크기의 물혹이 수술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살 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포장마차를 하며 한 겨울 추위에 덜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삶의 유일한 희망이 아들인데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선천성 뇌종양의 일종이었는데 처음부터 큰 병원을 가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다.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5년, 30년의 무사고운전 경력 끝에





녹색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뒷줄 우측에서 첫 번째가 김희영씨)



노점에서 떡볶이 가게 할 때 / 지금의 용현동 떡볶이 가게

개인택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치료비로 택시를 처분한 돈이 모두 들어갔고 빚까지 져야 했다. 뇌출혈 이후, 남편은 지능이 퇴화되어, 집안일은 물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등을 전혀 살피지 못한다.

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희망을 품고 있다 했던가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아들은 어느덧 청학공업고등학교 3학년으로 내년에 항공과 진학을 꿈꾸고 있다. 종양은 현재 5센티미터의 크기, 가끔씩 통증이 있지만, 잘 버티고 있다. 모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한다.

누구보다 흑독한 아픔을 겪었기에 김희영 씨는 주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했다. 그래서 김희영 씨의 나눔은 그 어떤 주장이나 실천 보다 눈물겹다. 2002년 연말, 무심코 TV를 보다가 금주림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모습이, 자신이 겪어온 일과 같아서 기슴이 저렸다. 그렇게 만원의 기부를 시작했다. 생활이 넉넉지 않았지만, 비록 만원으로도 아이들이 여러 끼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위안을 삼았다. 8년째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기부한 것이 김희영 씨의 삶에선 소중한 희망의 끈이다. 그 뒤로는, 병약한 아들의 등하교를 돋는 심정으로 비쁜 외중에도 녹색어머니회에 참여했고, 학익동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봉사에도 참여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녀야 했지만, 그렇게 봉사를 할수록 자신에게 위인이 되었다고 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기쁘던지….”

그밖에도 김희영 씨는 6년째 새벽1시까지 자율방범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늦은 시각 공원에서 어울리는 남녀 학생을 설득해서 집으로 돌려보낼 때는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남들처럼 관광버스를 타고 놀라가 본 경험도,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해본 경험도 전혀 없다는 김희영 씨. 동네사람들이 봄꽃놀이를 떠나면 남몰래 눈물을 삼켰다고 한다.

봉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매력을 잘 모른다. 주위에선 그녀를 가리켜 ‘미쳤다’ ‘떡볶이나 잘 팔지…’ 하며 수군거리기도 하고, 작년 12월 사회봉사부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을 때도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소리에 맥이 빠졌다고 한다. “도와주진 못할망정, 힘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동안 삶이 너무 고단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김희영 씨는 최근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주위로부터 격려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았지만 살아볼만한 세상이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보단 누구라도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내가 아닌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 어려운 길을 걸어온 김희영 씨에게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글 · 권영선 | (사)희망배달본부 본부장 *희망배달본부(032-830-1004) *김희영 '튀김과 떡볶이' (용현3동 206-13)



용현3동 자율방범 지원봉사단 (중앙의 여성은 김희영씨)

폭주족 10기

27살 여름... 짧은 추억의 끝인 자전거 여행.....
한 번쯤은 꼭 해 볼만 하다는 것과
오가며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고
어깨를 다독여 주던 정과 미소를 회상해 봅니다.

글 · 윤병로 | 약제팀



때는 작년 7월 하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막 대학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붙은 제 친구 호진이와 함께 거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20대의 짧은 휴가로 자전거 여행을 계획했고, 각자 20대 초에 샀던 애마들을 손보며 변수가 많은 자전거 여행을 대비하여 여러 도구들-힘들 때 에너지 충전용 초코바, 길가에서 급할 때 엔진 충전용으로 라면 쥬사 도구들, 날씨에 대비해 우비 및 쿨토시, 평크에 대비해 평크용 공구들 등을 챙기고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첫 날 목적지는 가평 경유 춘천이었습니다.

가평에서 모든 스트레스를 던져버리자며 번지점프를 뛰고 무리를 해서라도 목적지인 춘천에 가지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고 초코바를 뜯으며 춘천에 입성. 날아갈 듯한 기분을 안고 엔진 충전을 위해 닭갈비 거리로 가서 닭갈비와 막국수를 허겁지겁 해치우고는 근처 사우나에 들어가 뜨뜻한 온탕과 사우나를 오가며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엉덩이는 어린 시절 선생님께 맞은 것처럼 아파오고, 어깨에는 마치 곰 세 마리를 얹은 듯 했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생각에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높디높은 태백산맥을 넘어 속초에 도착 시원한 비단비름과 함께 달려보자는 생각과는 달리 비름은 안면을 강타했고, 찌는 여름 헷볕으로 인하여 그리 멀리 가지 못하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사우나에서 몸을 풀고 다음날 상쾌하게 다시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했고, 삼일을 밟아와서인지 우리에겐 이미 격식 같은 것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길거리 어느 장소를 앉든 그곳이 쉼터이며 어느 곳(일반기정집, 주유소, 주민센터 등등) 들어가든 우리에겐 오아시스처럼 시원한 물을 제공해주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정동진 근처였고, 배꼽시계는 이미 점심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배를 채우려 식당을 찾아봤지만 식당은 없었고, 시



골 구멍가게의 라면 행렬들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삼일을 그늘에서 지내던 코펠이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멍 가게 앞 파리솔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차비를 하고 있던 찰나, 가게 주인 할아버지께서 오셨고, 할아버지께서는 살며시 김치와 고추를 건네주시며 응원해주셨습니다.

띠뜻한 정을 다시금 느끼며, 띠뜻한 마음을 안고 다시 폐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밟다가 동해를 막 지날 무렵 갑자기 7번국도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바뀐다는 안내문이 우리 앞을 가로 막았고, 그곳에서 새로 운 시도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히치하이킹을 한지 15분여간 끝에 새 치를 싣고 달리는 큰 트럭이 우리 앞에 섰고 새 차와 우리의 헌 자전거를 싣고 함께 달린 끝에 울진에 도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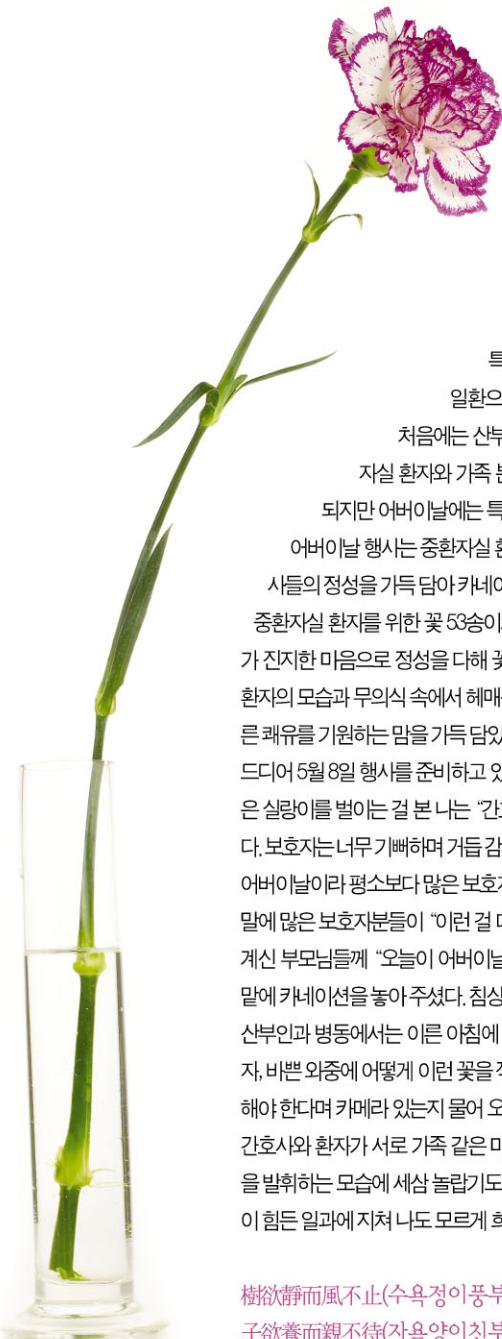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다음날 더욱 파이팅을 외치며 미친 페달을 밟아 결국 대구에 도착하여 지인을 만나 드디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삼곱삼막삼겹살, 곱창, 삼겹살, 막창의 전설을 세웠고, 대구의 명물인 꿀 막걸리가 흥을 더해, 잠을 푹 잘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도 하루 쉬자는 취지에 그간의 무더위를 한방에 날릴 대구 팔공산으로 가 수태골에 빌을 담구고 수박을 먹으며 여름의 향기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행선지인 부산을 향해 달리다 밀양에 들러 숨고르기를 했고, 다시 부산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지인을 만나 광안대교를 보며 회를 먹고, 광안리 백사장에 앉아 친구와 여행의 마지막을 곱씹으며 27살 여름의 짧은 추억의 끝인 자전거 여행의 묘미를 생각했고 한 번쯤은 꼭 해 볼만 하다는 것과 오가며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고 어깨를 다독여 주던 정과 미소를 회상했습니다.

자전거 여행이 아니었더라면 평생 한 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도 인사 한마디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한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좀 더 자주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면 직원 간에 띠뜻한 정과 미소가 오가는 병원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수간호팀 어버이날 행사를 마치며...

글 · 박명옥 간호사 | 특수간호팀 고객TFT



어버이날은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함을 전하는 날이다. 하물며 병상에 누워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마음은 더할 것이다.

특수간호팀의 어버이날 카네이션 행사는 환자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족도 증진 활동의 일환으로, 2011년 특수간호팀 고객만족TFT 사업계획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산부인과 병동만 해볼까 생각했지만 면회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항상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중환자실 환자와 가족 분들의 마음이 더욱 아파울 것이란 생각과 어린이날과 성탄절에는 다양한 원내 행사가 진행되지만 어버이날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는 점에 착안하여 어버이날 카네이션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어버이날 행사는 중환자실 환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카네이션은 생화가 아닌 조화로 결정하였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간호사들의 정성을 가득 담아 카네이션 종이꽃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달아 드리기로 했다.

중환자실 환자를 위한 꽃 53송이와 산부인과 병동 환자를 위한 꽃 50송이를 근무가 끝나고 함께 만들기 시작했다. 동료들 모두가 진지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꽃을 접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 또한 꽃잎 하나하나를 만들면서 암과 싸우느라 지친 환자의 모습과 무의식 속에서 헤매는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이 조그만 꽃 한 송이 속에 환자들에게 주는 큰 위로의 마음과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맘을 기득 담았다. 그리고 이 작은 꽃 한 송이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했다.

드디어 5월 8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어버이날 면회를 기다리는 보호자 몇 분이 생화 카네이션을 들고 와서 안내요원과 작은 실랑이를 벌이는 걸 본 나는 '간호사들이 카네이션을 준비해 놓았으니 생화는 두고 면회를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권유를 드렸다. 보호자는 너무 기뻐하며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다.

어버이날이라 평소보다 많은 보호자들이 면회를 오셨다. 간호사들의 '어버이날이라 간호사들이 카네이션을 준비 했습니다'라는 말에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런 걸 다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시며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셨다. 보호자분들은 누워 계신 부모님들께 '오늘이 어버이날이야… 간호사 선생님들이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어 주셨네요'라고 말하며 환자분들의 머리맡에 카네이션을 놓아주셨다. 침상에 누워 계신 환자분들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미소로 답해주셨다.

산부인과 병동에서는 이쁜 아침에 담당간호사들이 환자분들에게 꽃을 전해주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환자 손을 잡아주며 인사하자, 바쁜 와중에 어떻게 이런 꽃을 직접 만들어서 주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감사한 마음들을 전해 왔다 한다. 또 기념촬영을 해야 한다며 카메라 있는지 물어 오는 환자들도 있어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간호사와 환자가 서로 가족 같은 마음으로 환자의 쾌유를 빌고 정감을 나누며 어버이날을 축하하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을 발휘하는 모습에 세심 놀랍기도 하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나 또한 처음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겠다는 결심이 힘든 일과에 지쳐 나도 모르게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즈음에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며 초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樹欲靜而風不止(수욕정이풍부지)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子欲養而親不待(자욕양이친부대)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 주지 않네
유명한 논어 구절이 떠오르는 날

언제나 보고 싶지만 특히 오늘 같은 날이면 더 보고 싶은.
3년 전 돌아가신 아빠를 만나러 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感動



독서동아리 책향기 인하대병원 book-topia를 시작하며... *

글 · 김운영 선임기사 | 진단검사의학과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는 질문을 한다. 왜냐하면 이념적 동지를 만나고 싶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함께 바라보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된 계기는 2010년 인천 연수도서관에서 인문고전강의를 10개월(40주, 80시간)간 들으면서였다. 인문고전을 읽으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켜 보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반성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핵심적 요소이다. 또한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짐을 느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 주위 분들에게 인문고전 읽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같이 강좌 듣기를 청하였었다. 이런 권유는 내가 그 분들을 아끼기에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2011년에는 좀 더 나아가 10년 동안 인문고전 100권 읽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같이 이루고자 하는 동지를 찾고 싶어서 직장 내 독서동아리 책향기(인하대병원 book-topia)를 시작하게 되었다.

인문학 고전 읽기는 자신의 삶과 세계의 근본적인 비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공부라 생각한다.

우리는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우리가 고전을 읽는, 또 읽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고전이 인간이 살아온 당대의 삶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역사이며, 그 시대를 넘어서까지 통용되는 메시지를 주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밑거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비탕이 되기 때문이다. 고전은 세월의 담금질을 이겨낸 인류 지성의 가장 빛나는 유산이다. 고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을 만나려 떠난 자에게만 나타나는 벼락같은 축복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문고전을 열심히 읽기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아니다. 책속에 지식은 있을지언정 지혜는 책 속에 있지 않다. 지혜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한다. 그것도 위대함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고전을 읽고 치열하게 시유했을 때만 지혜는 우리에게 얼굴은 내민다.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삶을 사느냐는 더 중요하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핵심적 요소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켜 보는 반성에 있다. 그래야만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살아생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죽어서 후대의 평판까지 덧붙여져서 완성된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을 되새기면서 삶이 가져다주는 중압감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독서동아리 책향기를 통해서 함께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추천 도서

〈리딩으로 리드하라〉



책향기는 2011년 2월 23일 처음으로 정기총회를 통해 시작하였으며 첫 선정 도서는 〈리딩으로 리드하라〉입니다.

〈리딩으로 리드하라/이지성/문화동네〉에서 저자는 철학, 역사, 과학, 예술 등의 분야를 이용해 짧게는 일이백 년, 길게는 일이천년 이상 전해오며 널리 읽히는 작품인 ‘인문고전’을 읽는 것을 “천재의 두뇌에 직접 접속하는 행위”라 말한다. 이 책에는 초보자를 위한 독서노하우, 인문고전으로 리드하는 인생경험법, 세상을 지배하는 천재들의 인문고전 독서법 등 인문고전 독서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로 기득하다. 부모와 아이를 위한 인문고전 독서교육 가이드, 성인을 위한 인문고전 독서 가이드, 독서 단계별 인문추천도서 목록 등이 함께 수록되어있다.



Q & A

최고조 두통 전 복용해야 효과적

Q : 같은 부위의 머리가 자주 아픈 편이라 신경과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약 중에 진통제 말고 Imigran 정이라 는 약은 두통의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라고 하는데 두통을 예방하는 약인가요?

A : 편두통은 울렁증, 구토 또는 빛과민성 등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 긴장성의 반복적인 두통 증상입니다. 편두통의 원인은 머리 혈관 염증에 의해 주변 신경이 압박되어 통증으로 나타난다 는 의견 등이 있으나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편두통의 치료제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아스피린, acetaminophen, ibuprofen 등 NSAIDs의 진통제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일반적인 진통제로 나아지지 않는 편두통의 경우 imigran(R) 정과 같은 Triptan류의 약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편두통 치료제는 두통을 예방하거나 완치시키는 약물이 아니라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복용하게 됩니다. 즉, 두통 증상이 최고조에 달하기 이전에 약을 복용하여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편두통 증상이 나타나기 전 aura(전조증상)이 있을 때 triptan류의 약물을 복용하도록 권장합니다.

편두통은 악화 인지를 회피하는 방법으로도 증상의 완화 및 편두통 빈도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지나친 카페인 섭취, 수면 부족, nitrates 또는 tyramine 함유식품 (치즈, 훈제 생선 등), monosodium glutamate(MSG) 등도 편두통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약물 치료뿐 아니라 생활의 변화를 통해 편두통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기 바랍니다.



Q :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중 vincristine을 척수 내로 투여해서 환아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Vincristine처럼 정맥주사만 해야 하는 항암제가 또 있나요?

A : Vincristine은 허지킨 임파종, 급성 백혈병, Wilms tumor 등 각종 암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암제로, 척수강내 주사를 하는 경우 신경 손상 및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반드시 정맥 주사만 가능한 약 물입니다. Vincristine 외에도 vinca 알카로이드계에 속하는 항암 약물, 예로 폐암 등에 쓰이는 Navelbine(R) (vinorelbine), Velbastine (R) (Vinblastine) 역시 반드시 정맥 주사만 가능한 항암제입니다. 세계적으로 vincristine의 척수강내 투여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여 안전성의 이슈가 되고 있으며 WHO, FDA에서는 vincristine을 고위험 약물(High Alert Medication)로 구분하여 처방, 조제, 투여시 보다 주의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큰 병원과 차별화된 ‘작은 병원’의 역할에 충실

예지항외과의원 | 오환성 원장



올해로 예지항외과의원은 개원한 지 20주년을 맞는다. 긴 시간을 지내 온 것은 장점을 살려, 작은 병원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오 원장의 신념이 언제나 확고했기 때문이다.

큰 병원은 절차가 있고 의료인과의 질문이 힘들 수 있지만 여건이 되는 한 언제든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 오 원장은 말한다. 많이 불편한 환자에게 시간의 구애 없이 언제든지 필요로 하면 진료의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있다. 이는 수입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큰 병원과 차별화된 ‘작은 병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 원장은 항문 전문병원으로 덕치를 키우고 싶은 생각도 한때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외과의사는 침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한다. 어쨌든 결과가 만족치 않으면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생각은 크게 생각하기보다 지금의 이상태를 유지하려는데 최선을 다한다. 오 원장은 대소변을 못 보는 고총을 이야기 하며 때로는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항문의 대변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이 또한 해야만 한다면 마다하는 간호사도 없다. 늘 오 원장이 강조하는 의료 마인드이기 때문이다.

이다. 오 원장의 철저한 근성이 지금의 예지항외과의원을 있게 한 것임에 틀림없다. 일상생활에서 비데 사용 인식에 대한 오류가 많음을 지적하는 오 원장이다. 비데는 치료목적이 아니고 단지 위생적 기구라는 것에 충실히해야 한다. 본래의 목적 자체가 위생이지 예방,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물줄기를 세게 해서까지 세척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 원장은 인하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의 역할을 다해 달리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는다. 나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인천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함께 손잡고 가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환자가 고통 속에서 완치될 때, 외과적 수술로 궁극적인 치료가 완성될 때 오 원장은 보람을 느끼며 오늘도 ‘작은 병원’의 역할에 내실을 다진다. ● 인천시 남구 도화2동 ☎ 032-887-0153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가족 같은 병원

호림재활의학과 | 김준기 원장



호림재활의학과 김준기 원장은 지난해 12월 지역주민을 위한 병원으로 오픈 한 것은 지난해 12월의 일이다. 김 원장은 환자들이 고구마, 옥수수 등을 감사의 표시로 가져오는 가족적 분위기에서 공생하며 진료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또 바로 옆이 남구청이어서 그들에게는 가족병원 같은 이미지를 주고 싶다. 호림재활의학과는 전문 재활 의료 범위는 물론 2, 3차 병원으로 가기 전 편하게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가정주의의를 자처한다. 12명의 직원이 김 원장의 든든한 동반자이고 입원실 29ベ드,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보다 전문화된 재활 치료를 위해 장비, 시설 등을 늘 구상하고 있다.

김 원장은 짧은 감각민감이나 열정도 대단하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환자를 맞고 싶은 진료 포부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으로 의료적인 부분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싶기 때문이다. 직원들에게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더불어 살자는 점을 이야기 한다는 김 원장, 직원들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건강 지킴이로 함께 하며 언제든 문 열고 들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음 따뜻한 병원이고 싶다. 조금은 규모가 있는 전문 재활병원으로의 성장을 생

각해 보는 김 원장, 환자를 많이 생각해 주는 기슴이 오늘 유난히 낙낙해 보인다. ● 인천시 남구 송의2동 ☎ 032-883-9114

인하대병원 소화기질환 유효성평가 서비스센터 개소식 및 메디카네틱스주와 업무협약 ●

2011년 5월 19일, 인하대병원 소화기질환 의료제품 유효성평가 서비스센터(이하 'NCEED')는 이날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또한 메디카네틱스주와 업무협약으로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인하대병원 NCEED는 지난해 5월 27일, 보건복지부 Health Technology 고속화 사업의 일환인 '질환중심 유효성평가 기반구축센터'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9월 30일, 비전선포식을 실시하였다. 인하대병원 NCEED는 유효성평가를 위한 연구시설을 완비하고,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어 개소식 이후 본격적으로 고객만족의 유효성평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메디카네틱스주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산업 분야에서 산업화 촉진을 위한 공동연구 발전과 학술 교류를 약속했다. 특히 양 기관은 기술 정보교류, 상호기술자문, 학술회의 공동개최, 연구장비 및 시설, 공간의 공동활용 등 다각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이다. 박승림 의료원장은 "이번 개소식과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산학연 R&D 기반의 선진형 메디컬 콤플렉스 구축으로, 인하대병원이 신성장 동력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라며 "특히 연구중심 병원 입지를 굳혀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고, 이돈행 센터장은 "소화기질환 관련 의료산업 분야는 인하대병원 NCEED의 연구성과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라며 "서비스센터 가동으로 의료산업화가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국무총리상 수상 '제 4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

2011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 주최,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열린 '제 4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인하대병원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국립암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민들의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암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며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암예방 및 진료, 연구 등 국가암관리사업에 헌신한 유공자와 암관리사업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포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행사 관련하여 인천시청에서 열린 지역 행사에서는, 인하대병원 의료정보팀 이선옥 퍼트장과 영상의학과 김현길 감독방사선사가 지역 암관리사업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중국대사관 영사부와 건강검진 지정병원 협약 체결 ●●●**

2011년 4월 18일, 인하대병원과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건강검진 지정병원 협약'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인하대병원은 향후 2년간 중국 비자신청 시 인천지역 건강검진 지정병원으로 선정되어 중국 비자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영사부는 인하대병원 특유의 성실하고, 친절,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신뢰함에 따라 이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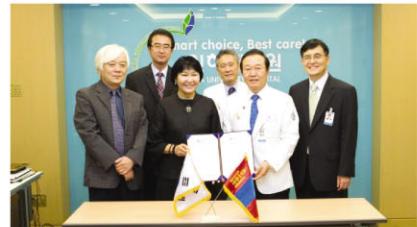
**인하대병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얼구 의회와 진료협약 체결 ●●●●**

2011년 3월 25일, 인하대병원은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얼구 의회와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지난 3월 4일 실시한 몽골 유일의 국립방송사인 MNB(몽골국립방송사)와의 해외의료관광 마케팅 관련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항얼구 의회 구의장 엉흐톱신(Enkhbayar) 등 총 15명의 몽골 측 관계자와 구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본 협약을 바탕으로 몽골 정부 및 공무원 단체와 협력병원 지정사업에 보다 더 추진력을 얻게 되었으며, 향후 몽골환자 유치 증대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해외의료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와 지정병원 협약 체결 ●

2011년 5월 9일, 인하대병원은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와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지난 3월 4일 실시한 몽골 유일의 국립방송사인 MNB(몽골국립방송사, 사장 오윤달)과 해외의료관광 마케팅 업무협약 관련사항으로, KULANDA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차관이 직접 본원을 방문하여 협약식을 진행했다. 인하대병원은 본 협약으로 3만 2천여명의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및 산하기관 직원 및 유학생들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전담하게 되었다.

**인하대병원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 개원 10주년 기념식 성료 ●●**

2011년 3월 11일, 인하대병원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는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인하대병원 공항의료센터는 지난 2001년 3월 12일에 인천국제공항 여객청사 지하 1층에 개원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응급환자 진료와 공항 내 종사원의 보건향상 도모를 위해 힘써오고 있으며, 공항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항을 위해 매일 24시간 쉬지 않고 달려와 드디어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인하대병원 공항의료센터는 지난해 7월 세계최초로 JCI 인증을 획득하며, 전 세계 공항에 위치한 공항의료센터 중 세계 유일의 국제공인 공항의료센터로 발전했다.

**한국지엠과 함께 백혈병 환아 의료지원 ●●●**

2011년 4월 14일, 인하대병원은 한국지엠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경인지부와 함께 백혈병 환아 의료비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지엠에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현혈행사 참여로 마련한 성금 2,000만 원과 현혈증서 1,000여장 등 다양한 기념품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경인지부에서 선정한 백혈병 환아 심OO 군(남, 14)에게 전달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인하대병원은 인천의 중심병원으로서 환아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약속하며, 감사의 표시로 한국지엠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베트남 의료관광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마케팅 실시 ●●●●**

2011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베트남 의료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마케팅을 실시했다. 이번 일정은 최근 고성장 잠재력이 있는 베트남 지역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마케팅을 통해 베트남지역의 의료관광 수요유치를 위해 의료관광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박승립 의료원장 등 3명으로 구성된 본원 방문단은 한국관광공사 베트남 하노이 지사 개소식에 참석함은 물론, 하노이 베-싱병원과 업무협약, 현지 의료관광 설명회 및 인적교류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본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관광공사 베트남지사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가칭) '인하대병원 베트남 현지지사' 개설을 통해 글로벌 U-Healthcare 서비스 등 다양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넘치는 - 2011년도 제8회 Q.I 학술대회 실시 ●●●●●**

2011년 4월 12일,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에서 '2011년도 제 8 회 Q.I 학술대회' 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구연별표 부문에서 보험심사팀이 '진료비 삭감률 최소화를 위한 심사업무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평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동 16병동 / 서 12병동이 '효율적인 린넨관리를 통한 비용절감활동', 미취통증의학과 / 미취회복실이 'TCI를 이용한 Protolfol, remifentanil 전정맥 미취환자의 각성 후 급성통증 감소활동'으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포



스터 부문은 서15병동, 간호부, 7병동 / 분만실 이 각각 우수상을, CQI 활동부문에는 영양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인하대병원, 인천 남구 고은여성병원과 진료협약 체결 ●●

2011년 3월 10일, 인하대병원은 인천 남구에 위치한 '고은여성병원 (병원장 오철학, 고은선, 차진영)'과 진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은여성병원 2011년 3월 2일 개원한 병원으로, 기존 고은산부인과의원 (본원과 2004년도 협진의원 체결)에서 병원으로 승격되었다. 고은선 병원 장은 "증증도 높은 환자를 인하대병원에 의뢰 할 경우, 비쁜 외증에도 이우영 교수님과 박지현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과 청렴 클리닉 협약체결 ●●●

2011년 4월 29일, 인하대병원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공무원 비위예방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협약체결식'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인하대병원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공무원의 직장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고충해소와 관리를 위하여 의료, 심리, 법률 및 경제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렴하고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 상호 지원 및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2011 인하청각재활교실개최 ●●●

2011년 5월 19일, 인하대병원은 '인하청각재활교실 2011'을 열어 다양한 강연과 함께 청각 재활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의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지역 최초로 인공외우 이식수술을 성공한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인천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난청아동재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적절한 교육 방안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청각장애 아동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했다.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김규성 교수는 "인공외우는 이식수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 전문가의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므로 거주지 근처의 믿을 만한 거점병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의료봉사 실시 ●●●●

2011년 4월 23일, 인하대병원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인천 남동공단 중소기업청 앞 광장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지역 다문화가정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산부인과, 내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7개 진료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첨단 의료장비를 탑재한 이동진료버스 5대와 중소기업청 대강당에 차려진 진료부스에서는 종합병원 못지않은 양질의 진료를 실시했다.



제11회 인천국제마라톤대회 의료지원 성료 ●●●●●

2011년 3월 27일, 인하대병원 사회봉사단은 인천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 11 회 인천국제 마라톤대회' 의료지원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약 12,00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인하대병원은 의무상황실을 운영했으며, 박금수 제1진료부원장을 비롯 심장내과 우성일 교수 외 20여 명의 임직원 및 직원 가족들이 참가하며 의료봉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천의 중심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환우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부활절 칸타타' 성료 ●

2011년 4월 22일, 인하대병원은 환우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2011 부활절 칸타타' 공연을 실시했다. 정성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40여 명의 칸타타 대원들은 공연을 찾았던 환우 하나하나의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건강을 되찾길 기원했다. 힘든 진료과정을 이겨내고 있는 많은 환우 및 보호자들은 지친 심신을 달랠 때 시간이 되었다.

**어린이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로 '동심의 꿈을 키워요' ●●**

2011년 5월 3일부터 환아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인하대병원과 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이 함께 마련한 <한상민의 매직쇼>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며 힘박 웃음을 선물했고 5월 4일(수)에는 소아병동 환아들을 위한 임원진 책 전달식과 '꼬마 파티쉐'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1층 로비에서는 '만화영상진흥원과 함께하는 캐리커처 그리기'가 열렸다. 캐리커처 행사장에서는 귀여운 만화캐릭터와 폴라로이드 사진촬영과, 직접 참여하여 '사랑의 뱃지'로 가족과 친지들에게 사랑스런 선물을 만들기도 했다. 어린이날, 병원에서 병마와 싸워야 하는 많은 환아들은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인하대병원 박승림 의료원장, 인천광역시장 표창 수상 ●●●**

2011년 3월 29일, 인하대병원 박승림 의료원장은 인천 로얄호텔에서 열린 인천광역시의사회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석상에서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다각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펼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본 수상을 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장 공로패를, 산부인과 송은섭 교수는 학술연구지원상을 수상하였다.

**인하대병원 김경순 간호사, 노사협력증진 공로 대통령표창 수상 ●●●●**

2011년 4월 29일, 근로자의 날 맞이하여 인하대병원 김경순 간호사가 노사협력증진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장을 수상했다. 김경순 간호사는 평소 노사협력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왔으며, 특히 노사 화합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바가 커 대통령표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인하대병원 내분비내과 김용성 교수,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으로 선출 ●●●●●**

2011년 1월에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2012년 12월까지 2년간 학회를 운영할 것이다. 대한비만학회는 내과, 가정의학과, 영양, 스포츠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가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1500명 정도되는 규모가 큰 학회이다. 국내에서 비만을 예방, 치료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장태영 교수, 대외학술대회서 학술상 수상 ●●●●●●**

2011년 3월 13일,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장태영 교수는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개최된 '제 41 회 대한비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장태영 교수는 대한비과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한항공우주의학회 회장 및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1년간 7편의 SCI급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술적 업적을 인정받아 이날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외과 신우영 교수 한국간담췌외과학회에서 학술상 수상 ●

인하대병원 외과 신우영 교수는, 지난 2011년 4월 1일 ~ 2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 34 차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원저부문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70% 간 절제술을 받은 쥐에서 피브린젤을 이용한 중간업줄기세포의 생체내 간세포 분화'라는 논문의 의미를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신경외과 현동근 교수 및 김도근 전공의, 대외학술대회서 학술상 수상 ●●

2011년 4월 22일 실시된 '2011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제 29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인하대병원 신경외과 현동근 교수님과 신경외과 4년차 김도근 전공의는 'Prediction of postoperative drainage volume and brain expansion of chronic subdural hematoma' 관련 논문으로 150여 개의 포스터 논문 중 타당성과 참신성 그리고 결과의 의미 등을 인정받아 '우수 포스터 논문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대한간호협회 인천광역시 간호사회 총회, 본원 간호사 다수 수상 ●●●

2011년 3월 3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실시한 '대한간호협회 인천광역시 간호사회 총회'에서 본원 송호숙 간호사 팀(이일민, 조화연, 최종규, 민수현)이 논문학술상을, 보험심사 팀 오선영 과장과 전선영 종양전담간호사가 모범간호사상을 수상하는 영광이 있었다. 박혜옥 연구지원 팀장님은 지난 3월 4일 실시한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병원간호사회 이사와 인천광역시병원간호사회장을 역임한 공을 인정받아 간호지도지상을 수상했다.



이비인후과 김범준 전공의 - 우수연제상 수상 ●●●●

2011년 5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제85차 대한이비인후과 춘계학술대회' 본원 이비인후과 김범준 전공의가 '구강 세척액으로서의 저농도 차이염소산의 안전성 및 구강 내 세균에 대한 항균효과'라는 연구 주제로 전공의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전공의의 연구의욕 고취와 학술활동 장려를 위해 구연 발표를 신청한 연제 중 학문적 가치가 우수하고 전공의가 제1저자인 논문에 대해 매년 3편의 주제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파랑새 소식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문의 여성암센터 ☎ 032-890-2560
 ► 홈페이지 www.inha.com > 여성암센터 ►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http://cafe.daum.net/inhabluebird)



● 지난 행사 내용

2011, 4월 14일 파랑새 야유회
 벚꽃이 만개한 4월에 파랑새 회원 30여분이 꽃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설악산 오색약수터에서 산나물 점심을 먹고 양양 낙산사 들려 시원한 바다 바람도 쐬고 뭇다한 얘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다음 행사 (6월)

- 파랑새 체육대회
- 양재천 걷기 대회

* 일정 및 장소 : 추후 여성암센터 홈페이지 통해 공지예정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2011.03.18



출연 : 하윤석 교수/외과
프로그램 : YTN 'You are
a doctor'
내용 : 위암의 치료

2011.03.24



출연 : 임종한 교수/산업의학과
프로그램 : KBS 1TV '아침마당'
내용 : 방사능과 건강

2011.04.06



출연 : 임종한 교수/산업의학과
프로그램 : MBC '불만제로'
내용 : 식품첨가물의 위험성

2011.04.05



출연 : 조재화 교수/호흡기내과
프로그램 : 인천방송 6시 뉴스
내용 : 황사에 대비한 건강관리법

2011.04.07 / 14



출연 : 이현규 교수/혈액증양내과
프로그램 : OBS 메디컬더큐
'생생'
내용 : 백혈병 환자의 치료과정

2011.04.29



출연 : 최선근 교수/외과
프로그램 :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내용 : 대장암의 치료

2011.04.29



출연 : 차영덕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프로그램 :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내용 : 마취통증치료의 효과

2011.04.29



출연 : 이지은 교수/소아청소년과
프로그램 : MBC 꾸리기식사
교실
내용 : 소아의 영양과 성장

2011.05.04



출연 : 임종한 교수/산업의학과
프로그램 : KBS 2TV
'주목 60분'
내용 : 암 발달 물질의 유해성

인사동정

보직임명

소속	성명	발령사항
외과	홍기천	혈관내 치료 교육센터 센터장
병동간호팀	조선신	동15병동 간호단위책임자
의료정보팀	정민주	의무기록 파트장
원무팀	정홍채	입퇴원 파트장
	김종철	외래 파트장

인사총무팀

김명성
윤상원
재무팀
진료지원팀
Q I 팀
홍보팀

연구지원팀

영종메디컬센터 개원추진본부
인사총무팀
재무팀
홍보팀
진료지원팀

임용

성형외과	진료교수	김연수
치과	진료교수	손선정
공항의료센터	일반의	김경호
교육수련부	치과일반의	전충만

이달의 친절직원

4월 병동간호팀 (동10병동)
5월 병동간호팀 (동17병동)

최수현 간호사

노인숙 간호사

수습직원임용

약체팀	황혜민
-----	-----

표창

〈공로직원〉 재무팀
산업의학과
〈공로부서〉 진정화복실
〈공로단체〉 고운소리자선공연단
〈우수논문〉 임상의학연구부 연구교수

윤석현

고명철

채용

인사총무팀	인턴사원	김승봉
-------	------	-----

전명신

김경태, 김도근, 김유희

오선영

최효선, 정은정, 하현정

김기원, 박주경

김지영

이건희

유호완

이관희

조용귀

한선화

전근

소속	성명	발령사항
병동간호팀	방정아	외과 - 전담간호사
병동간호팀	김현애, 김옥금	특수간호팀
특수간호팀	정유진, 박은영, 꽈미영	병동간호팀
병동간호팀	김현정	외래간호팀
인사총무팀	고종옥	경영전략팀



Global INHA

인하대병원은 공항에서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비행 중 위급한 외국인 환자분이 ICU에 입원 하실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urse: Hello. You are in the Intensive Care Unit.

안녕하세요. 지금 환자분은 ICU(중환자집중치료실)에 계십니다.

Nurse: Mr. /Mrs. -----, you are admitted here in the ICU for special treatment due to your ----- problem. You are going to get an intensive care because you have had a -----.

----- 환자분은, ----- 문제 때문에 집중 치료가 필요하셔서 이곳 ICU에 입원하셨습니다. -----를 앓고 계시기 때문에, 집중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Patient: I understand. Please tell my daughter.

알겠어요. 제 가족한테 알려주세요.

Nurse: No problem.

네 알겠습니다.

Patient: Thanks.

감사합니다.

Daughter: Nurse, is it okay to visit the patient often?

간호사 선생님, 환자를 자주 방문해도 되나요?

Nurse: I'm sorry, but the visiting hours are allowed to two times a day only. We have to do that to avoid possible contamination from the visitors.

죄송합니다. 하루에 2번 방문이 가능하십니다. 방문객으로 인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Daughter: May I know where can I buy supplies for the patient?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어디서 살 수 있죠?

Nurse: You may buy them at the stores on the B1 floor.

지하 1층의 상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Daughter: Where could I stay?

저는 어디서 있으면 되죠?

Nurse: Please make sure a member of the family remains in the waiting room except visiting hours.

가족분들은 방문 시간 외에는 대기장소에서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Daughter: Ye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 Global Inha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병원에서 쓰이는 영어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병원 영어 회화가 있으시면, 원보의 업서 또는 inhapr@inha.com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인하대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봉사해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 자격

- ① 만 60세 미만으로 주 1회(3시간) 최소한 6개월 이상 활동 가능하신 분
- ② 각종 교육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 ③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

2. 봉사활동시간(평일)

- 오전 : 9시 ~ 12시 / 오후 : 1시 ~ 4시

봉사활동 부서별 내용



3. 봉사자에 대한 예우

- ① 3시간 이상 봉사 활동시 식권 지원
- ② 봉사당일 무료주차
- ③ 행사 참여 : 아유회, 송년회, 간담회
- ④ 자원봉사상해보험가입
- ⑤ 의료비 감면(6개월 이상 봉사자)
- ⑥ 자녀(중고생) 인하대병원 학생지원봉사활동 참여시 우선 자격 부여

활동부서

대상

활동내용

활동부서	대상	활동내용
소아청소년과	입원, 외래환아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동화구연
외래안내	내원객	진료상담, 진료실, 검사실 위치안내, 동행안내
도서대여	입원환자, 보호자	무료도서대여, 반납, 정리
이미용 봉사	입원환자	이미용(병동방문)
호스피스	입원환자	세발, 간병, 목욕, 말벗
진료지원부서 (중앙공급실/수술실/세탁실)		진료재료 공급, 거즈나 봉대접기, 의료소모품 정리 환자가운 등 세탁물 정리

● 문의 : 병원 지하 2층 자원봉사실 담당 - 신소영 ☎032-890-2873

인하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890-2604)
- ▶ 무통장 입금 : 하나은행 : 748-910002-39804
(예금주)인하대병원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 참조

◎ 총괄 현황 | 2011년 5월 1일 현재

기부자	약정액	납입총액	비고
297명	980,068,298원	798,933,019원	

◎ 기부자 현황 | 2011년 3월 1일 ~ 2011년 5월 1일 현재

일자	성명	약정액	비고
2011.3.23	정대성	300,000	(완납)
2011.4.01	강정자	1,000,000	호흡기내과조재화 교수 모친
2011.4.12	박원희	2,000,000	비뇨기과 교수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출산준비 부부교실	• 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 - 참가비 7만원	매주 (토) 오후 2시	3층 회의실	분만실 (032)890-2170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 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 •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 •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 유방암 환자의 식이 •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 •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6/9(목), 7/13(수) 오후 2시 ~ 4시	3층 1 세미나실	여성암센터 (032)890-2560
대장암환자를 위한 영양교육	• 대장암 환자의 식사 관리 • 암환자의 전반적인 영양 관리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 세미나실	임진료상담실 (032)890-3600,3638
암환자를 위한 미술치료	• 암환자의 우울감 극복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미술요법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1시	18층 10호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3638



갤러리 전시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작가	장소
2011. 5. 21 ~ 2011. 6.11	김현순 개인전	김현순	2층 갤러리
2011. 6. 11 ~ 2011. 7. 2	한국산악사진가협회 사진전	(사)한국산악사진가협회	2층 갤러리
2011. 7. 2 ~ 2011. 7.16	박영동 개인전	박영동	2층 갤러리

인하대병원 암진료안내

암진료상담실 : (032)890-3600

★ : 사이버나이프센터 ◆ : 비만센터 □ : 여성암센터 ■ : 폐암센터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선태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오전 오후	비고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선태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오전 오후	비고
				월, 수, 금	화, 목							월, 수, 금	화, 목		
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김형길 권계숙 방병우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 소화관질환, 변비클리닉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월, 수, 금 수, 금 수, 목 화	월, 월 월, 목 화, 목 화, 목, 금	8:15~09:30 서비스진료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김용성 남문석 홍성빈 김소현	* 갑상선, 당뇨병, 비만, 내분비 * 갑상선, 당뇨병, 뇌수마비, 내분비 * 갑상선, 내분비, 폴디공증, 당뇨병 * 갑상선, 내분비, 당뇨병, 비만	월, 화 (화) 화, 수, 목 수, 목 월, 수, 금 화 (수)	월, 화 (화), 금 화, 수, 목 수, 목 월, 수, 금 화	월, 화 (화), 금 화, 수, 목 수, 목 월, 수, 금 화	월, 화 (화), 금 화, 수, 목 수, 목 월, 수, 금 화
외과	신석현 허윤석	* 소화기외과, 위암 * 소화기외과, 위, 위암	(화◆)	월, 목 화, 목				외과 (여성암센터)	조영업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갑상선암) * 유방,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수 (화) (금)	(월)	월, 화 (화), 금 화, 목 수 (화)	월, 화 (화), 금 화, 목 수 (화)	월, 화 (화), 금 화, 목 수 (화)
혈액종양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이비인후과	김명모	* 두경부종양, 갑상선, 음성장애, 편도 임자열	금 (화) 화, 목	금 (화)	금 (화)	금 (화)	금 (화)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화 김우철 김현정	* 종양학, 혈액학 * 방사선종양학 * 방사선종양학	화, 수 화,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화, 목, 금 화, 목, 금 월, 수, 목 화 (수), 목, 금				혈액종양내과	이문화	* 종양학, 혈액학 임주한	월, 금 월, 금 월, 금	월, 금 월, 금 월, 금	월, 금 월, 금 월, 금	월, 금 월, 금 월, 금	
대장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운운 김형길 권계숙 방병우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 소화관질환, 변비클리닉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월 수, 금 수, 금 수, 목 화	월, 월 월, 월 화, 목 화, 목, 금	8:15~09:30 서비스진료		유방암	외과 (여성암센터)	조영업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 유방,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수 (화) (금)	(월)	월, 화 (화), 금 화, 목 수 (화)	월, 화 (화), 금 화, 목 수 (화)
외과	김경래	* 소화기외과, 대장형질환	월 수	월 수				이비인후과	김운정	* 유방방사학	금 (화)	금 (화)	금 (화)	금 (화)	
최선근	최선근	* 소화기외과, 대장형질환	화, 목	금				혈액종양내과	이문화	* 종양학, 혈액학 방사선종양학과	수, 목 월, 목	월, 목 월, 수, 목 화, 목, 금	월, 목 월, 목 월, 수, 목 화, 목, 금	월, 목 월, 목 월, 수, 목 화, 목, 금	
혈액종양내과	이문화	* 종양학, 혈액학	수, 목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김우철	월, 수, 목 화, 목, 금	월, 수, 목 화, 목, 금	월, 수, 목 화, 목, 금	월, 수, 목 화,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 방사선종양학	화, 목 월 (화), 수, 목, 금	화, 목, 금 월 (화), 수, 목, 금				부인암	산부인과	이우영 이병의	* 부인과종양 * 부인과종양	화, 목 월 (화), 목 화 (화), 목, 금	화, 목 월 (화), 목 화 (화), 목, 금	화, 목 월 (화), 목 화 (화), 목, 금	
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김영수 이진우 이정일	* 간암클리닉, 간질환, 위내시경 * 간암클리닉, 간질환, 간염, 간경변 * 간암클리닉, 간질환, 간염, 간경변	월, 화, 목 화, 목 화, 목, 월, 화, 목	화, 목, 금 화, 목 화, 목, 월, 화, 목			비뇨기암	외과 (여성암센터)	황성옥 박정우	* 종양학, 복강경 부인과종양	화 (화) 화 (화), 목, 금	화 (화), 목 화 (화), 목, 금	화 (화), 목 화 (화), 목, 금	
외과	안승익 이건영 신우영	* 간도외과, 이식외과 * 간도외과, 이식외과 * 간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수, 금 월, 목	화, 목 수, 금 화, 목				혈액종양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월, 수, 월, 목	월, 수, 월, 목	월, 수, 월, 목	
혈액종양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화	* 종양학, 혈액학 김현정	월, 수, 목 화, 목, 금	월, 수, 목 화, 목, 금	월, 수, 목 화, 목, 금	월, 수, 목 화,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 방사선종양학	화, 목 월 (화), 수, 목, 금	화, 목, 금 월 (화), 수, 목, 금				비뇨기과	박원희	* 요실금종양, 전립선질환	화, 금	화			
췌·담도 계임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행복 정 석	* 담도·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 담도·췌장암, 담도췌장암, 위내시경	화, 목 화, 금 화, 목	화, 목 화, 목 화, 목			운상민	* 종양, 결손, 전립선질환	화, 금	화				
외과	안승익 이건영 신우영	* 간도외과, 이식외과 * 간도외과, 이식외과 * 간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수, 금 월, 목	화, 목 수, 금 화, 목				성도환	* 종양, 결손, 전립선질환	월, 화, 수	수			오전진료 : 14:00~15:30	
혈액종양내과	이문화	* 종양학, 혈액학	수, 목	월, 목				혈액종양내과	이문화	* 종양학, 혈액학 임주한	수, 목 월, 금 월, 금 월, 금	수, 목 월, 금 월, 금 월, 금	수, 목 월, 금 월, 금 월,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 방사선종양학	화, 목 월 (화), 수, 목, 금	화, 목, 금 월 (화), 수,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김우철	월, 수, 목 화, 목, 금	월, 수, 목 화, 목, 금	월, 수, 목 화, 목, 금		
췌·담도 계임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행복 정 석	* 담도·췌장암, 담도췌장암, 위내시경 * 담도·췌장암, 담도췌장암, 위내시경	화, 목 화, 금 화, 목	화, 목 화, 목 화, 목			이문희	* 요실금종양, 전립선질환	화, 금	화				
외과	안승익 이건영 신우영	* 간도외과, 이식외과 * 간도외과, 이식외과 * 간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수, 금 월, 목	화, 목 수, 금 화, 목				운상민	* 종양, 결손, 전립선질환	화, 금	화				
혈액종양내과	이문화	* 종양학, 혈액학	수, 목	월, 목				성도환	* 종양, 결손, 전립선질환	월, 화, 수	수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 방사선종양학	화, 목 월 (화), 수, 목, 금	화,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방사선종양학과	월, 수, 목 화, 목, 금	월, 수, 목 화, 목, 금	월, 수, 목 화, 목, 금		
췌·담도 계임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행복 정 석	* 담도·췌장암, 담도췌장암, 위내시경 * 담도·췌장암, 담도췌장암, 위내시경	화, 목 화, 금 화, 목	화, 목 화, 목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김우철	월, 수, 목 화, 목, 금	월, 수, 목 화, 목, 금	월, 수, 목 화, 목, 금		
외과	안승익 이건영 신우영	* 간도외과, 이식외과 * 간도외과, 이식외과 * 간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수, 금 월, 목	화, 목 수, 금 화, 목				이비인후과	김운정	* 두경부종양, 인연경관, 3차신경통, 소아 뇌종양과	월, 화, 수 화 (화), 목, 금	월, 화, 수 화 (화), 목, 금	월, 화, 수 화 (화), 목, 금		
혈액종양내과	이문화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박현선	* 노동매개, 경증매개증상, 모아이어증, 뇌혈관기형 뇌종양과	월, 화, 수 화 (화), 목, 금	월, 화, 수 화 (화), 목, 금	월, 화, 수 화 (화),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 방사선종양학	화, 목 월 (화), 수, 목, 금	화,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신경외과	김은영	* 난경외과, 뇌종양, 인연경관, 3차신경통, 소아 뇌종양과	월, 화, 수 화 (화), 목, 금	월, 화, 수 화 (화), 목, 금	월, 화, 수 화 (화), 목, 금		
췌·담도 계임	호흡기내과	이호령 곽승민 류정선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화, 목 (화) 화, 목, 월 (화) 화, 목, 월 (화)	화, 목 (화) 화, 목, 월 (화) 화, 목, 월 (화)	() : 주별 진료 수 (1,3)		조재화	* 모발, 조각질환, 어드름, 모발이식, 피부외과, 레이저 피부과	화 (화) 화 (화), 목, 금	화 (화), 목 화 (화), 목, 금	화 (화), 목 화 (화), 목, 금			
흉부외과	김길호	* 폐종증, 기흉, 다한증	연구년 : 2011. 3. 14 ~ 2011. 6. 13					신정현	* 종양학, 혈액학 임주한	월, 화, 수 월, 목, 월, 화, 수 월, 목, 월, 화, 수	월, 화, 수 월, 목, 월, 화, 수 월, 목, 월, 화, 수	월, 화, 수 월, 목, 월, 화, 수			
흉부외과	김길호 김정택 윤용한	* 심장, 폐관, 청맥류, 폐질환 * 폐증기증, 기흉, 다한증, 기흉, 흉곽기형	월 (화) 월 (화) 월 (화)	월 (화) 월 (화) 월 (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 방사선종양학	화, 목 월 (화), 수, 목, 금	화, 목 월 (화), 수, 목, 금	화, 목 월 (화), 수, 목, 금		
혈액종양내과	김길호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화, 목, 금	월, 수, 목 화, 목, 금	월, 수, 목 화,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이현규 김우철	* 혈액학 종양학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수, (목)	(월) 화, 목, 수,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김현정	월, 수, 목 화, 목, 금	월, 수, 목 화, 목, 금	월, 수, 목 화, 목, 금		
총부 관련암	김길호 김정택 윤용한	* 폐증기증, 기흉, 다한증 * 심장, 폐관, 청맥류, 폐질환 * 폐증기증,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월 (화) 월 (화) 월 (화)	월 (화) 월 (화) 월 (화)				피부과	최광성 신정현	* 모발, 조각질환, 어드름, 모발이식, 피부외과, 레이저 피부과	화 (화) 화 (화), 목, 금	화 (화), 목 화 (화), 목, 금	화 (화), 목 화 (화), 목, 금		
혈액종양내과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수, (목)	(월) 화, 목, 수, (목)				혈액종양내과	이문화	* 종양학, 혈액학 임주한	월, 수, 월, 수 월, 목, 월, 수 월, 목, 월, 수	월, 수, 월, 수 월, 목, 월, 수 월, 목, 월, 수	월, 수, 월, 수 월, 목, 월, 수 월, 목, 월, 수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화, 목, 금 월 (화),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 방사선종양학	화, 목 월 (화), 수, 목, 금	화, 목 월 (화), 수, 목, 금	화, 목 월 (화), 수, 목, 금		
췌·담도 계임	혈액종양내과	김길호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피부과	최광성 신정현	* 모발, 조각질환, 어드름, 모발이식, 피부외과, 레이저 피부과	화 (화) 화 (화), 목, 금	화 (화), 목 화 (화), 목, 금	화 (화), 목 화 (화),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화, 목, 금 월 (화), 목, 금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신경외과	김운정 박현선	* 난경외과, 뇌종양, 인연경관, 3차신경통, 소아 뇌종양과	월, 화, 수 화 (화), 목, 금	월, 화, 수 화 (화), 목, 금	월, 화, 수 화 (화), 목, 금		
소아암	소아청소년과 방사선종양학과	김순기 김우철 김현정	*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 혈액, 종양학 * 혈액, 종양학	수, 금 화,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수, 목 화, 목, 금 월, 수, 목, 금	오전진료 : 14:00~15:30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 방사선종양학	화, 목 월 (화), 수, 목, 금	화, 목 월 (화), 수, 목, 금	화, 목 월 (화), 수, 목, 금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 대표전화 1600-8114(전국)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 대표전화 1600-8114(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국내 첫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국내 최초 의료원 전 부문 JCI인증 동시 달성

Healthcare Quality
Patient Safety



의료기관 인증제는 국내 및 국제 환자안전기준 충족은 물론 세계수준의 우수 의료기관을 양성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하대병원은 국내 의료기관 첫 인증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공인받게 되었습니다.
국내최초 의료원 전 부문 JCI인증과 더불어 인천의 대표 의료기관으로 한걸음 더 도약하는 최첨단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인하대병원
www.inha.com